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Between Exegesis and Sermon)

고 재 수(N. H. Gootjes) 지음
기독교 문서 선교회 / 209쪽 / 2,500원

송 길 원 (고신대학 의학부 교목)

반 뷰렌(Van Buren)은 기독교가 서느냐 몰락하느냐 하는 것은 설교에 달려 있다고 갈파했다. 교회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들어 죽게 될 것이다.”고 했던 것이다.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역시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이것은 명백하게도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설교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불행스럽게도 설교는 의식과 전통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설교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설교·위기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현상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이 분석된다. 로이드 존스의 위기 진단 가운데 다음의 지적에 귀기울여 보자.

“무분별한 설교집의 출판은 메시지의 진리성보다도 문학적 표현과 역사적 인유, 인용 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상의 결과는 설교에 새로운 사상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설교를 연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설교의 퇴색과 함께 예배에 의

식적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점가의 신간 코너에는 매일같이 목회자들의 설교집이 등장한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 설교집들이 설교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화려한 장정, 미려한 문체, 빼어난 편집, 나무랄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용은 어느 수준을 점하고 있을까? 몇 권의 설교집을 빼 놓고는 잡지보다 못한 설교집이 많다.

어쩌면 설교집 알레르기라 할 수 있는 필자의 병적 반응에 신선한 충격을 준 설교집이 바로 고재수 교수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였다.

본서는 캠퍼 신학교 출신의 저자(본명 N. H. Gootjes)가 고신 대학 경건회 시간에 행한 설교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강해 설교가 한국 강단을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모범적 강해 설교 혹은 갱생적 모범 설교에 대한 열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서는 바로 이런 격정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지침서라 해도 좋을 것이다.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첨가한 해설은 본문에 실린 24 편의 설교를 조망하는 데 큰 유익을 준다. 여기에다 각주를 통해 주석적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 매 설교의 끝에 첨가된 설교의 주제와 대지는 본문을 놓고 설교 준비를 연습하는 자들(신학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재미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의미가 본문을 통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는 설교자의 영원한 명제인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격려가 될 것이다.